

손에 잡히는 오픈소스, 기업 비즈니스와 전략 사례

심호성

한국오픈소스협회(KOSSA) 상근부회장

neider@kossa.kr



“봄 도다리, 여름 민어, 가을 전어, 겨울 대방어.”

유행하는 제철이 있어 그때만 많이 찾는 음식이다. 오픈소스도 이와 같이 이슈가 있을 때만 잠시 부각되어 관심을 끄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올해 1월 중국의 오픈소스 AI 딥시크(DeepSeek)-R1이 발표되자, 또 한 번 오픈소스의 큰 밀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오픈소스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삼키는 것보다 더 빨리 소프트웨어를 삼키고 있다. 우리가 제철 물고기가 아니라 그것을 키워주는 바다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때로는 잔잔하다 큰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는 파도를 ‘트렌드·위기’라고 본다면, 파도에 대응하여 방향키로 헤쳐 나가는 우리의 꾸준한 항해를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픈소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다루고, 돈을 버는지 일목요연하게 알기도 힘들다. 사람 중심으로 좋은 재료를 다루어 만드는 오픈소스를 한두 페이지의 레시피, 이론으로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손에 잡히는 오픈소스 비즈니스 방법을 전하고자 다양한 기술과 분야의 오픈소스 전문기업을 조사하게 되었다. 필자는 오랫동안 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글로벌 협력 활동을 하며 만나 온 여러 오픈소스 기업 중에서 기술, 사업 분야와 창업 이력 등을 기준으로 Case를 분류하여 다양한 참고가 되도록 선정하였다.

누구에게나 오픈하는 데는 그 나름의 목적이 있다. 참여와 협력의 이유도 각기 존재한다. 또, 시간을 축으로 반복되는 일들은 우리에게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게 해준다. 다양한 기업의 경험이 각자의 오픈소스 향해를 돕는 조타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기고의 기업 사례와 전략을 참고하여 스스로 기회를 찾고, 오픈소스 비즈니스의 목적과 가치를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희망한다.

조사 방법

- 오픈소스 비즈니스를 하는 여러 분야 전문기업 12개를 대상으로 선정
-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상반기까지 대면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
- 본 기고에 앞서 각 기업의 최신 이슈를 반영하는 비즈니스 업데이트 실시
- AI와 관련된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은 함께 조사하여 별도 항목으로 제시

조사 기업(무순)

- | | |
|-----------------------|-------------------------------|
| 1. 오에스비씨(OSBC) | 7. 뮌테크놀로지스(Wrtn Technologies) |
| 2. 큐브리드(CUBRID) | 8. 유엔넷(UNNET) |
| 3. 스파로우(Sparrow) | 9. 인베숨(invesume) |
| 4. 가이아쓰리디(Gaia3D) | 10. 리원에이스(Liwonace) |
| 5. 라온시큐어(RAON SECURE) | 11. 클라우드브로(CloudBro) |
| 6. 에스코어(S-Core) | 12. 무아베모션(Muabe Motion) |

오픈소스 전문기업 비즈니스와 전략 사례

1) 오에스비씨(OSBC)

“글로벌 네트워킹으로 혁신 선점, 오픈소스 방식으로 함께 멀리”

오에스비씨(주)(이하 OSBC)는 대한민국 오픈소스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이다. 2006년 설립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 이상의 고객사에 오픈소스 관리 솔루션 공급과 오픈소스 거버넌스/컴플라이언스 및 보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오픈소스 분야 사업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다.

OSBC는 다방면에서 오픈소스 관리 솔루션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크게는 오픈소스 관리 도구 공급, 오픈소스 컨설팅, 오픈소스 검증 서비스, 오픈소스 교육/자격증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06년 설립 이래 국내 최초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해 오픈소스 관리 솔루션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1월에는 오픈소스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제2의 도약을 선언하며, BDSK에서 OSBC로 사명을 변경했다. 또한 국내외 오픈소스 조직 및 선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에 이바지하고 있다.

창업자인 김택완 OSBC 대표는 현대전자 미국 보스턴 소프트웨어 연구소장, 리눅스재단 한국 대표 등을 역임한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이다. “OSBC 혁신은 글로벌 SW 리더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이슈와 시장을 선점하는 데 있습니다.”라고 밝힌 그는 지금도 한 해의 절반 이상을 미국, 유럽, 아시아의 오픈소스 행사와 단체를 방문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SBOM 등 굵직한 글로벌 이슈를 이끌어 올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렇게 발 빠르게 미래를 준비하지만, 그 실행은 느리더라도 참여의 오픈소스 방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그의 말처럼, 오픈소스는 생태계를 만들고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그래서 OSBC는 다양한 국내외 오픈소스 활동에 대한 후원은 물론이고 ‘OSBC 글로벌 오픈소스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OSBC에서는 ‘오픈소스 원스톱 관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FOSSID(포스아이디), Snyk(스닉), 그리고 Clarity(클래리티) 솔루션을 한국에 독점 유통하고 있다.

첫째로, 2020년 국내 총판 파트너십을 체결한 FOSSID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및 보안 취약점 관리를 위한 솔루션이다. 소스코드 내 모든 오픈소스 컴포넌트를 탐지하고, 각 컴포넌트의 라이선스 및 보안 취약점을 식별한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글로벌 선두 개발자 보안·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인 Snyk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Snyk은 개발자 보안·컴플라이언스 플랫폼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개발자의 워크플로우와 자동으로 통합되며 보안팀과의 협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개선된 보안 인프라 및 개발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킨다. 현재 Asurion, Google 등 전 세계적으로 2,000곳 이상의 고객사에서 Snyk을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사이너리 Clarity는 바이너리 코드 분석을 통한 오픈소스 관리 솔루션으로, 바이너리 코드를 스캐닝하여 소프트웨어 내에 존재하는 오픈소스 컴포넌트를 식별하고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및 보안 취약점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은 클래리티의 바이너리 코드 점검을 통해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법적 이슈와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방지하여 외부에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AI 비즈니스] 오픈소스 라이선스 데이터를 학습하여 AI 기반으로 비전문가도 자사의 정책 수립을 자기 주도로 할 수 있는 ‘OSIMS’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2) 큐브리드(CUBRID)

“철저한 사용자 중심과 생태계 기여, 그것이 큐브리드 오픈소스”

큐브리드는 관계형 ‘DBMS CUBRID’ 제품에 대한 개발, 컨설팅 및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0년 초중반부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사업을 시작하여 1997년 국내 최초의 상용 DBMS를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 ‘참여·개방·공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오픈소스로 전환하였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사용자 확산이 성장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2008년 소스 코드를 개방하고 오픈소스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변경하였으며, 지난 16년 동안 국내외 35만 건 이상의 제품 다운로드와 서비스 계약 고객 기준으로 1,500개 이상의 시스템에서 2,300여 개 DB 인스턴스가 운영되고 있다.

2023년에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디지털서비스물 공개SW 부문 1호 기업이 되었으며, 처음으로 국방기술품질원에 큐브리드 제품을 조달 공급하기도 했다.

사용자 확산 측면에서는 2011년부터 시작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의 표준 DBMS로 채택되어 중앙행정기관 웹 서비스 및 업무 시스템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매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을 통해 노후 대체 및 신규 시스템에 지속 적용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되면서 오픈소스 DBMS 시장의 파이를 키웠다. 큐브리드 정병주 대표는 “철저한 사용자 중심의 오픈소스 기술 개발과 서비스가 큐브리드 생태계를 만들어 온 원칙이자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다.

큐브리드는 글로벌 개발자 생태계 확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 미국에 ‘큐브리드 재단 (CUBRID Foundation, CF)’을 설립하였다. CF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미국에 설립한 최초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글로벌 개발자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컨트리뷰터 확산 등 큐브리드 프로젝트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루마니아 아니아소프트웨어(Arnia Software)와 캄보디아 개발자들이 큐브리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도구인 디비버(DBeaver) 커뮤니티와도 협업하고 있다.

2021년 12월에는 오픈소스 생태계 및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개SW 산업발전 유공자 표창’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어느덧 오픈소스 업력이 17년 이상이 된 큐브리드는 클라우드 인프라 확산으로 오픈소스 DBM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장 상황에서, 꾸준한 연구 개발과 기여를 통해 사용자, 나아가 개발자 생태계 확장을 선도하고 있다. 2025년 5월에는 오픈소스 DBMS CUBRID의 대용량 처리 지원을 강화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한편 오라클 호환성을 향상시킨 CUBRID 11.4 버전을 출시했다. CUBRID 11.4 버전에는 오라클 호환성 지원을 위한 PL/CSQL이 추가되었으며, PL/CSQL은 오라클의 저장 프로시저, 함수, 트리거 등의 문법과 호환되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CUBRID로의 애플리케이션 전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해시 조인(Hash Join)을 추가했으며, 성능 개선을 위한 기능이 추가되었다. 또한 비즈니스 접근성도 크게 강화하여,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삼성SDS SCP(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카카오 클라우드, 가비아 등 국내 주요 CSP(Cloud Service Provider)와의 협력으로 클라우드 기반 오픈소스 DBMS의 접근성을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 AWS 마켓플레이스 등록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도 등록함에 따라 국내 기업 및 기관과 더불어 해외 사용자들도 손쉽게 CUBRID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AI 비즈니스] 최근 관계형 DB에서도 그래프DB나 벡터DB 기능을 추가하는 추세인 만큼, 큐브리드도 AI를 겨냥하여 벡터DB를 개발하고 있다. 큐브리드는 벡터DB 기술을 통해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유연성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3) 스파로우(Sparrow)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SW 공급망 보안을 선도”

최근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 급증하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 특히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오픈소스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오픈소스 중심의 공급망 보안 전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그 투명성과 높은 유연성으로 인해 많은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존재하는 취약점이 널리 공개되어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특성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용 중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존재하는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하여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공급망 보안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분야에 우수한 국내 기술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스파로우가 주목받고 있다. 설립 때부터 회사를 성장시켜 온 장일수 대표는 “스파로우의 역량은 사람 중심으로 직원들을 믿고 함께 가는 오픈소스 방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최근 3년간 직원이 매년 20% 이상 늘고 있고 사무실을 지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내부 신뢰는 제품의 섬세한 품질로 고스란히 반영되어 고객 가치를 극대화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스패로우는 2018년 5월에 설립된 소프트웨어 보안·품질 전문기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전체 단계에 필요한 시큐어코딩(SAST), 웹취약점(DAST), 컴포넌트(SCA) 분석 등의 기술을 통합 제공하고 조직의 규모나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파악하는 일이다. 스패로우의 오픈소스 분석 기술은 소스 코드, 바이너리나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 사용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물론 컨테이너 이미지 형태로 포함되는 형태까지 분석을 지원한다.

식별된 오픈소스 구성 요소들의 관리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Software Bill of Materials, 이하 SBOM)를 활용한 방안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SBOM을 제공하는 방식에는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많은 조직에서는 여전히 이메일 첨부나 파일 복사를 통해 SBOM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원시적 방법은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선 전달 과정에서 공격자가 SBOM을 손쉽게 변조할 수 있으며, 수신자는 해당 SBOM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생성되었는지 검증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관리의 복잡성이다. 파일 기반 관리 방식에서는 전달 이력과 변경 사항을 추적하기 위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새로운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때, 영향을 받는 구성 요소를 찾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모든 SBOM을 검토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패로우가 제공하려는 안전한 SBOM 유통 플랫폼의 핵심은 디지털 서명 기술의 활용이다. 공급자가 SBOM을 생성할 때 디지털 서명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SBOM의 출처 신뢰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 상호 검증 과정을 거쳐 SBOM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더 나아가 플랫폼은 SBOM 전달 이력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취약점 발생 시 실시간 알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동적이고 비효율적인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SBOM 생명주기 관리가 가능해진다.

스패로우의 SBOM 유통 플랫폼 기술은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AI 비즈니스] 생성형 AI 개발 환경에서의 보안 테스트, AI 기술을 활용한 최적의 보안 취약점 조치 등 조직 전체의 보안 역량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기술 개발을 구현 중이다.

4) 가이아쓰리디(Gaia3D)

“오픈소스 Outside-In 혁신으로 디지털 트윈 시장 주도”

“오픈소스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혁신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공유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기술을 만들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가이아쓰리디 주식회사(대표이사 신상희)는 2000년 설립 이래

공간정보와 디지털 트윈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해 온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2008년 과감한 오픈소스 전환으로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가이아쓰리디는 현재 국내외에서 오픈소스 GIS 및 디지털 트윈 전문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가이아쓰리디의 오픈소스 여정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자체 GIS 엔진을 개발하던 회사는 ‘공유를 통한 함께하는 성장’이라는 신상희 대표의 철학에 따라 과감히 오픈소스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이는 업계에서 상당한 위험으로 여겨졌지만, 결과적으로 이 결정은 회사의 성장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2007년 늘어나는 고객 대응을 위해 오픈소스를 처음 고려한 시기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픈소스가 가진 잠재력을 믿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죠.”

신상희 대표는 조지 데이(George S. Day) 와튼스쿨 교수의 ‘Outside-In 전략’에 기반하여 외부의 좋은 오픈소스를 가져다 활용하고, 내부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핵심역량에 집중하였다. 그해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개최된 ‘국제 오픈소스 GIS 대회(FOSS4G)’에 직접 참가해 GIS 분야의 오픈소스 수준을 점검하고 나서는 오픈소스 기업으로서 비즈니스 발전성에 대한 확신이 섰다. 이후 2008년부터 신규 개발 프로젝트는 과감하게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자신은 KAIST 경영대학원에서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등 철저한 오픈소스 혁신을 내재화하였다.

가이아쓰리디의 디지털 트윈 제품인 mago3D는 이런 오픈소스 철학과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이다. mago3D는 도시 계획/설계/시공/관리의 도시 생애주기 전 과정을 아우르는 도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다. mago3D는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오픈소스 GIS R&D 과제의 일환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글로벌소프트웨어 공모대전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고, 2023년에는 국토교통부의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었다. mago3D는 공간정보 국제 표준화 기구인 OGC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다양한 오픈소스를 활용한다. 가이아쓰리디는 mago3D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mago3DTiler를 GitHub를 통해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는 가이아쓰리디의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실제 GitHub에서 교류하게 된 태국, 인도 등 여러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진행 중이다.

가이아쓰리디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 도시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에 1차와 2차 모두 참여하여 시스템을 직접 구축했으며,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 등 다양한 기관의 프로젝트에 mago3D를 활용하였다. 특히, 일본 최대 정부출연연구소인 AIST와 공간정보 국제 표준화 기구 OGC의 프로젝트에 mago3D가 활용된 것은 가이아쓰리디의 기술력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가이아쓰리디는 단순히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있다. 오픈소스 GIS 커뮤니티인 OSGeo 한국어 지부와 협력하여 오픈소스 GIS 프로젝트의 번역과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FOSS4G Korea 대회를 매년 후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OSGeo 재단의 골드

스폰서로 활동하며, FOSS4G 국제 대회에 매년 직원들을 참가시켜 한국의 오픈소스 GIS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AI 비즈니스] GeoAI(Geospatial AI, 지리공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어 기반의 지식형 응답 제공 등 공간정보에 특화된 공간 지식추론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5) 라온시큐어(RAON SECURE)

“K-DID, 오픈소스 날개 달고 전 세계 개발자 이끈다”

IT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이제 오픈소스가 필수적이다. 한 기업의 기술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해외 수요자의 니즈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방식을 타고 시장 개척의 효율을 높이며 해외 개발자와 원활하게 소통하려는 공급자 전략 때문이다. 보안 분야에서 이를 추진하는 라온시큐어의 사례에 주목해 보자.

2025년부터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필두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 전 세계 각국은 저마다 신분증을 디지털화(Digital ID)해 도입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고 UN과 세계은행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도 일반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정보 주체 권리 강화’ 등 개인정보 관리의 ‘자기주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DID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기업이 있다. 바로 라온시큐어다. 우리나라 모바일 신분증 발급 시스템에 라온시큐어의 블록체인 기반 DID 플랫폼 기술이 접목됐다. 4,500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스템도 라온시큐어의 블록체인 기반 DID 기술로 구현 중이다. 라온시큐어는 2012년에 설립된 IT 보안인증 플랫폼 기업이다. 모바일 보안, 생체인증(FIDO) 등 보안인증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라온시큐어는 자체 보유한 생체인증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2018년부터 블록체인 기반 DID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디지털 ID의 성공적 모델은 해외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세계은행, 동남아, 남미 국가 등도 우리나라의 K-DID 구축 사례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라온시큐어는 인도네시아 국가 디지털 ID 설계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024년 10월에는 ‘옴니원 디지털아이디(OmniOne Digital ID)’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깃허브를 통해 ‘옴니원 오픈 DID’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전 세계 개발자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DID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앞당겨 K-DID의 글로벌 확산을 선도해 옴니원 디지털아이디의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하며 이끌어 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분증이 없어 범죄로부터의 보호와 복지에서 소외된 전 세계 13억 명의 인구에 디지털 ID를 발급하는 인류사회 공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모바일 신분증과 오픈소스 DID 생태계의 확대를 위해 라온시큐어는 (사)한국디지털인증협회가 주최하는 ‘2025 블록체인&AI 해커톤’ 대회의 주관사로도 참여하고 있다.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되는 ‘블록체인&AI 해커톤’은 블록체인과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웹3(Web3)의 혁신을 다양한 산업에서 실현하고 관련 생태계를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대회의 필수 조건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등) 적용’이며, 라온시큐어가 깃허브에 오픈소스 공개한 블록체인 디지털 ID 플랫폼인 ‘옴니원 오픈 DID’ 또는 옴니원 메인넷 활용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AI 비즈니스] 라온시큐어는 생성형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개인 보안 앱 라온 모바일 시큐리티에 탑재했으며, 지난 1월 공식 출시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개인 누구나 쉽게 동영상 파일이나 URL로 해당 영상의 딥페이크 여부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기술은 SDK나 API 형태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통신사, 금융기관, 정부기관 및 다양한 기업이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 에스코어(S-Core)

“오픈소스 최신 기술과 이슈를 담은 글로벌 TOP 서비스”

제조, 유통, 금융 등 SW 수요 기업들의 오픈소스에 대한 참여와 도입이 늘어나면서 공급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 오픈소스를 적용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중공업, 호텔신라 등 삼성관계사의 굵직한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들을 13년 이상 수행해 온 에스코어가 눈에 띈다.

에스코어는 2007년 운영체제 개발 전문기업으로 시작하여, 리눅스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면서 오픈소스 역량을 꾸준히 키워왔다. 특히 삼성그룹 전 임직원이 사용하는 그룹웨어의 메일 엔진을 순수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하여 글로벌 벤더사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대체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에스코어의 기술적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이를 통해 오픈소스 Full Stack 역량을 갖추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시스템 구축 사업에 그치지 않고 기술 지원 사업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면서 컨설팅부터 전환, 구축, 운영에 이르기까지 아우르는 ‘오픈소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에스코어의 ‘오픈소스 원스톱 서비스’는 거버넌스 컨설팅, 도입 컨설팅 및 아키텍팅, 상용 소프트웨어 전환, 오픈소스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서비스는 에스코어만의 독보적인 강점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객사에 맞춤형으로 제안하며 고객 비즈니스에

극대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에스코어의 오픈소스 사업을 현장에서 이끄는 서성한 사업부장의 말이다.

필자가 오래 지켜본 에스코어는 검증된 수행 경험 이외에도 오픈소스 전문기업으로서 돋보이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로, OS-DB-미들웨어(MW)-Cloud-AI 전 범위 오픈소스 체계로 전사 오픈소스 거버넌스 전략 수립까지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픈소스 간 연계 이슈 발생 시 통합 지원과 해결 제시가 가능한 것이다. 둘째로, 다양한 선택지의 엔터프라이즈 버전과 커뮤니티 버전을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 서비스 효율이 높고 자체 기술 인력으로 지원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오픈체인 ISO 5230(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ISO 18974(보안) 인증 획득 및 Red Hat, Elastic, EDB 최상위 파트너십 등 글로벌 최신 기술과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여 최상의 고객 서비스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AI 비즈니스] 기존에 널리 쓰이던 Elastic, EDB, Redis 등 오픈소스 DB의 생성형 AI 활용 RAG(검색증강생성) 시스템 벡터DB 기능을 기반으로 AI 시장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삼성그룹 전 임직원이 사용하는 그룹웨어에 오픈소스 벡터DB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하였고, 해당 레퍼런스 기반으로 활발하게 AI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7) 뤼튼테크놀로지스(Wrtn Technologies)

“누구나 만드는 AI 디지털 세상, 뤼튼의 오픈소스 혁명”

누구나 AI와의 십여 분 대화만으로 온라인 토론 사이트를 만들고 농수산물 쇼핑물을 열 수 있다. 이것은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주)뤼튼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한 AI 도구들로 지금 당장 가능한 현실이다. 이 정도로 대단한 기술이라면 공공 숨겨서 혼자 가지고 싶을 텐데 왜 뤼튼은 오픈소스를 고집할까? ‘함께 멀리’ 가고자 하는 뤼튼 AI의 오픈소스 전략을 들어보자.

첫째로, AI 시대의 생존 전략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세상에서 완벽한 제품을 혼자 만들겠다고 버티다가는 기회를 놓친다. OpenAI,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언제든 비슷한 서비스를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와 수익 모델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더라도, 기술이 완성되었다면 일단 세상에 내놓고 전 세계 유저들과 함께 키워 나가자’는 것이 뤼튼이 오픈소스를 선택한 이유이다.

둘째로, 투명성으로 신뢰를 만드는 전략이다. “AI가 내 아이디어를 몰래 학습하는 것은 아닐까?”,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은 아닐까?” AI 서비스를 사용할 때 누구나 한 번쯤 가지는 자연스러운 걱정이다. 특히 사업 아이디어나 고객 정보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다룰 때는 더욱 그럴 것이다. 오픈소스로 이런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어 달라”가 아니라 “직접 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뒤편 서비스로 구현하는 데는 세 가지 마법 도구가 있다고 한다. 대화로 만드는 시스템 AutoBE, 이를 AI로 연결하는 Agentica, 앱 화면까지 자동 완성하는 AutoView이다. 아이디어 → AutoBE(시스템) → Agentica(AI 직원) → AutoView(앱 화면)로 서비스가 구현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동네 치킨집에서 온라인 주문을 받고 싶어요.”라는 아이디어 하나로 사장님이 메뉴와 주문을 관리하는 시스템, 고객이 쉽게 주문할 수 있는 앱, 24시간 주문을 받아주는 AI 직원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뤼튼은 이러한 편리하고 직관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일반 사용자들에게 먼저 인기를 얻고 기업으로 고객을 넓혀 가려고 한다. 카카오톡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ChatGPT, Hugging Face 등이 성공한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며 기업에는 맞춤형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영역을 넓혀 나가고자 한다.

2025년에도 뒤편은 AI 개발 도구의 완전 자동화, 누구나 쉽게 디지털 사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창의적 기획과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비즈니스를 실현하고 있다. 또,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드는 꿈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다고 한다. 뒤편과의 대화는 GitHub에서 @wrtnlabs를 검색하면 쉽게 시작할 수 있다.

8) 유엔넷(UNET)

“오픈소스 파워로 사업 영역 확장해 최적의 금융시장 DBMS 도전”

IT 기업의 오픈소스를 통한 사업 영역 확장은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 활용률이 80% 이상이 된 현 상황에서 (2024년 오픈소스 실태조사, nipa) 많은 IT 공급 기업에 ‘사업적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년 업력의 네트워크 전문기업에서, 오픈소스 DBMS ‘타란툴라DB(TarantulaDB)’을 통해 토털 IT·SW 솔루션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유엔넷을 소개한다.

유엔넷은 IT 인프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미들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합 제공하는 토털 IT 솔루션 기업이다. 지난 5년 전부터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유통 및 개발사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여 우리은행, 기업은행의 레드햇 OS통합 유지보수 사업을 연달아 수주하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의 변신에 성공했다.

유엔넷은 고객사에서 오라클 DBMS 대신에 PostgreSQL 엔진 기반의 오픈소스 DBMS를 도입하여 수백억 원의 운영 비용을 절감한 사례에서 오픈소스 DBMS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어 2023년에 오픈소스 PostgreSQL DB 엔진 기반의 토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타란툴라DB’를 개발했다.

이어 이듬해에는 우수 소프트웨어를 인증하는 GS1등급을 획득하여 객관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유엔넷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필요한 금융 분야 고객사의 요청으로 TarantulaDB의 HA(고가용성) 성능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 OS 장애, 네트워크 장애 등에도 안정적인 HA 성능을 입증하면서 오라클 DBMS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했다. 제2증권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SOR(Smart Order Routing)

솔루션의 표준 DBMS로 선정되고 연이어 증권사에 타란툴라DB를 공급하면서 기술력이 우수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7월부터는 KT 클라우드 환경에서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고 공공 및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 수요에 본격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가 클라우드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공공기관이 PostgreSQL을 표준 DBMS로 채택하여 PostgreSQL 기반의 상용 오픈소스 DBMS들이 공공 시장의 주력 DBMS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타란툴라DB의 공공시장에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유엔넷의 김주섭 대표는 “아직도 공공 DBMS 시장에서 한 공급기업의 점유율이 약 60% 이상으로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이나 민간 기업이나 효율에서는 최고의 제품보다 이기종 연계성, 기능, 성능, 가격, 서비스 등을 고려한 최적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0여 년 동안 수많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실현하면서 얻은 ‘고객 니즈에 최적화된 제품 기술력과 안정성’으로 타란툴라DB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다짐한다.

[AI 비즈니스] AI 기술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빅데이터 솔루션을 개발 중이며, 2025년 하반기에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9) 인베숨(invesume)

“코드를 열어 AI 시대를 맞이하는 기업, 인베숨”

인베숨은 지난 10여 년 동안 오픈소스를 품고 달려온 기업이다. 김형채 인베숨 대표는 “그동안 ‘HamoniKR OS’로 공공기관의 원도 종속을 깬 데스크톱 리눅스를 만들었고, ‘AI.RUN’으로 데이터는 사내에 그대로 두고 초거대 AI를 쓰는 길을 열었죠. 국방부 사이버지식정보방 PC 1만 2,500대를 안정적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라고 회고한다.

오픈소스라고 하면 개발자들의 자발적 놀이터가 먼저 떠오르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선 다른 도전이 기다린다. 안정적인 LTS(Long Term Support) 버전 없이는 프로젝트 모델이 멈추면 서비스도 멈추게 된다. 패치와 SBOM으로 취약점을 잡지 못하면 보안 사고가 터지기도 한다. 그래서 점점 오픈소스 생태계는 책임 있는 기업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인베숨은 ‘코드는 열어 두고, 운영·보안·거버넌스는 회사가 책임지는’ 서비스 방식이다. 덕분에 군·금융처럼 까다로운 현장도 이 회사에 맡기면 오픈소스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다. 커뮤니티는 자유롭게 혁신하고, 기업은 실전 품질을 보증하는 구조이다.

이런 전략으로 ‘하모니카 OS’ 프로젝트를 제품화해서 국내 최대 규모(국방부, 12,500대) 공공기관과 다수의 행정기관 업무 PC, 교육기관 실습실, 기업 업무용 PC 등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2022년에는 품질 및 호환성을 인정받아 국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1등급을 획득하였으며, 2022년 ‘제9회 대한민국 SW제품 품질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였다.

HamoniKR OS(하모니카 OS)는 한국어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된 리눅스 기반 개방형 운영체제로, 2013년 정부 지원으로 개발이 시작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다. 인베숨은 하모니카 OS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기술적 방향을 주도하고 핵심 기능 개발과 개선에 크게 기여 해왔다. 윈도 사용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데스크톱 환경을 제공하고, 국내 업무 환경에 최적화한 OS 개발을 목표로 한글 폰트와 입력기, 무료 백신, 오피스 프로그램, 화상회의 프로그램, 도구 등도 제공하였다.

또한, 하모니카 OS는 오픈소스 커뮤니티(<https://hamonikr.org>)를 통해 배포되고 다수 사용자의 피드백으로 지속 개선되고 있다. 누적 다운로드 약 25만 건(2025년 기준)에 이르며, 2024년 말에는 최신 버전 하모니카 8.0 백두(Paektu)까지 공개되는 등 커뮤니티와 함께 새로운 버전을 계속 선보이고 활발한 업데이트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하모니카 OS는 다양한 플랫폼 버전으로 확장되고 있다. 데스크톱용 외에도 서버용, 경량 IoT/미니PC용 버전 개발을 진행하였고, 실제로 원격 관리 솔루션(Hamonize)이나 화상회의 솔루션(Hamonia Media Weaver)처럼 하모니카 OS를 기반으로 한 연계 제품들을 개발하였다. KT 클라우드, 터치 클라우드(대만 AI 기업) 등과 협업하여 하모니카 OS를 클라우드 데스크톱 서비스나 외국 기업 솔루션의 OS로 제공하며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인베숨의 코드를 여는 리더십은 개방형 OS의 실용성 입증과 다각화로 국내 개방형 OS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AI 시대를 맞이하여 활용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AI 비즈니스] AI 시대 오픈소스를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AI-네이티브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모니카 OS의 2025년 릴리즈 ‘코드네임 세종(Sejong)’에 포함될 Codai 프로젝트를 공개하였다. 또한 ‘로컬 AI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AI.RUN’ 제품을 출시하여 국산 개방형 OS에서 AI 플랫폼까지 전 주기 오픈소스 밸류체인을 구축하였다.

10) 리원에이스(Liwonace)

“다양한 하이브리드 서비스 경험이 기술력, ‘오픈소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용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서비스 모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이 기술적 유연성과 상업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한다.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는 전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고, 두 가지의 특성을 조합하여 사용자에게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술과 고객 요구의 변화에 맞추어 우수한 기술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리원에이스(대표 김태성)가 주목받고 있다. 리원에이스는 10여 년간 고객사에게 ‘오픈소스&상용 소프트웨어’를 제안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해 왔다. 최근 컨테이너 기술의 변화에 따른 특정 영역의

엔지니어링 경험보다는 개발팀의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엔지니어링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아우름 패키지(AURUM Carepack Service)라는 서비스 브랜드를 론칭하였다.

리원에이스는 2013년 3월에 설립된 오픈소스 기술 지원 전문 회사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대한 이해나 인식이 부족한 기업들은 기술 지원의 필요성을 간과하였으며, 특히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에 익숙한 기업들은 오픈소스의 자율적인 기술 지원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기술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응하기 어려웠다. 또한 오픈소스에 대한 이해가 낮은 환경에서는 기술 지원 체계 구축에 소극적이었다. 오픈소스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기술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이브리드 모델 제안을 통해 기업이 기술 지원 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일부 오픈소스 기업들은 유료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었다.

“리원에이스는 10여 년간 다양한 고객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IT 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오픈소스, 무엇이든 리원에이스에게 물어봐 주세요.”라고 전하는 김태성 대표는 그동안의 IT 인프라 사업 전반의 노하우를 회사의 핵심 기술력으로 꼽았다.

오픈소스 전문기업들과 협업 및 네트워크를 중요시하는 리원에이스는 SUSE, 스페로우, 씽크엠 등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동시에 GitLab 구축 사업, UtL 사업 ISP 및 컨설팅, GitHub 분석 모듈(GraphQL) 개발, API 유량제어(Back-end) 사업 기회 부여, 앱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 등 서비스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AI 비즈니스] 샌즈랩(SANDS Lab) 등 AI 분야 기업과의 다양한 파트너십 체결로 AI 관련 기술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1) 클라우드브로(CloudBro)

“오픈소스와 AI로 만드는 클라우드 온톨로지(Ontology) 서비스”

AI 기술의 고도화와 클라우드 복잡성의 심화는 엔지니어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를 던지고 있다. 특히 Gen AI와 Agentic AI의 실무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현장에서 ‘정확한 기술 판단’과 ‘최신 기술 기반의 복잡한 장애 대응’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클라우드 실무자 중심의 온톨로지 기반 AI 서비스를 표방하는 CloudBro가 글로벌 클라우드 생태계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CloudBro는 단순한 기술 커뮤니티가 아니라, 실시간 문제 해결 중심의 AI 기능과 함께, 현업 전문가의 경험과 판단을 수집·정제해 클라우드 지식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일 엔지니어의 경험을

넘어, 집단지성으로 확장된 클라우드 ‘추론 시스템’을 만든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들과 뚜렷이 구분된다.

CloudBro AI는 2025년 5월 12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여 년간 네트워크, 모바일, VoIP, 클라우드, 보안, 비디오 등 다양한 IT 분야의 글로벌 스타트업에서 기술, 영업,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폭넓은 글로벌 경험을 쌓아온 이제응 공동 창업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리눅스 아시아 재단, 특히 CNCF(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의 한국 대표로 활동해 왔으며, 2016년에는 클라우드 오픈소스 컨설팅 기업인 OSC 코리아를 창업해 오픈소스 기반 기술 혁신을 국내에 꾸준히 확산시켜 왔다.

또한, 이서연 공동 창업자는 CloudKitchens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 및 국내 스타트업의 엔터프라이즈 대상 IT 세일즈 및 사업개발(BD) 영역에서 실무 역량을 다져왔다. 삼성 오픈소스 홍보 및 기술 강연 활동 경험도 갖추고 있어, 기술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양면의 전략적 감각으로 CloudBro의 시장 전략 및 기획을 이끌고 있다.

CloudBro가 지향하는 비전은 명확하다. 바로 ‘AI+인간 협업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생태계 온톨로지(Global Cloud Engineering Ontology) 구축이다. 실무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집적되고 시각화되어, AI와 사람이 함께 확장해 나가는 지식 인프라 체계를 의미한다. 클라우드는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영역이기에, 정확한 추론과 기술적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려면 수많은 전문가의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며 비전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AI 비즈니스] CloudBro는 기술-사람-경험을 연결하고 이를 축적하는 구조를 설계한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함께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클라우드 지식의 흐름을 재정의하며, AI로 학습하고 연결하는 집단지성의 허브이자, 문제 해결력과 기술 역량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AI 기반 생태계이다.

12) 무아베모션(Muabe Motion)

“오픈소스, 취미가 業으로 스타트 UP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여전히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료로 배포되는 코드는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편견 때문이다. 하지만 2024년 4월 설립된 무아베모션은 고정관념을 깨고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비즈니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회사 이름인 무아베(Muabe)는 무당벌레를 발음하기 좋게 받침을 빼서 만든 이름으로, 잘 보이지 않는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먹어 식물에 큰 도움을 주듯이 오픈소스로 생태계에 기여하고자 짓게 되었다.

무아베모션의 오재웅 대표는 이 모든 여정을 개인적인 스토리에서 시작했다. 여자친구에게 청혼할 때, 그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다. 자신이 가진 개발 능력을 활용해 그녀를 위해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자 했고, 아이들이 보는 입체 이야기책에서 영감을 받았다. 오재웅 대표는 움직이는 이야기책을 모바일

기기에서 재미있게 보고 싶었고, 이를 위해 AI 기반의 인터랙티브 엔진 '쿼크(Quark)'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쿼크 엔진을 바탕으로 그는 인터랙티브 앨범을 제작했고, 이를 아내에게 프로포즈 선물로 주었다.

처음에는 그저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쿼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전해 갔다. 재직 중인 회사 내부에서도 모션과 인터랙션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또한, 해외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면서 이 프로젝트는 꾸준히 업데이트되며 성장해 갔다.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공개SW 개발자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여는 '인슈어테크 해커톤'에서도 대상을 차지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오재웅 대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픈소스 기술이 단순한 취미나 개인 프로젝트를 넘어 사업화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졌고, 이에 기반하여 스타트업까지 설립하게 되었다. 불과 창업 1개월 만에 시드(Seed) 투자를 유치하고, 창업 초기임에도 매출을 달성하며 그들의 오픈소스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창업 4개월 차에는 창업 성장기술 개발사업인 틱스(TIPS) 프로그램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서울시 창업기업 중 최우수기업으로도 선정되며 그 기술력과 사업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이들의 오픈소스 기술력이다.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기술적 투명성과 빠른 발전 가능성은 투자자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무아베모션의 성공은 오픈소스가 단순한 취미나 개인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사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오재웅 대표는 "오픈소스를 통해 더 많은 개발자가 자신의 기술을 알리고, 이를 고도화해 비즈니스로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하며, 오픈소스가 미래 기술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밝혔다.

[AI 비즈니스] 쿼크 엔진이 생성형 AI와 결합하여 인터랙션 영상 전체를 생성하고 조작까지 가능한 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AI 교과서' 등 AI 기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다.